

대학 한문 교육의 교수학습법 개발 방안

— 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한문 관련 수업 사례를 통해 —

김진경*

<目次>

I. 서론	1.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동양
II. 강의 사례를 통한 교수학습법 개발 모색	고전의 재해석 2. 寓言으로 이해하는 동양의 지혜
	III. 결론

<국문 초록>

대학에서 한자 학습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한문 학습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자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한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학습 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이 호응할 수 있는 수업 내용과 운영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한문 관련 수업의 실제 사례를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문 교육의 교수학습법 개발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대학에서의 한문 교육에 대한 실질적 접근이라는 취지 아래에 필자가 담당했던 <동양의 지혜>라는 한문 관련 수업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소개하고, 그것을 토대로 효율적인 한문 교육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상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요건으로는 합리적인 목표 설정, 수요자의 관심을

*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연구교수 / yeshanmoon@hanmail.net

유발할 수 있는 강의 자료, 수요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방식, 타당한 평가 기준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요건 가운데 본고에서는 특히 수요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강의 자료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운영 방식을 위주로 사례를 제시하며 논의를 전개하였다.

필자가 <동양의 지혜> 수업에서 진행했던 교수학습 방법은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동양고전의 내용을 현실 삶 속에서 재해석하는 것과 寓言을 통해 동양의 문화와 선조들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다. 위축된 한문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교수법 모색의 일환으로 지난 2~3년 사이 한문 교과의 교육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한문 관련 실제 강의 사례를 통한 콘텐츠 활용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영성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법 사례가 대학 한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수법을 모색하는 데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제어】 한문 교육, 교수학습법, 강의 사례, 동양의 지혜, 문화콘텐츠, 우언

I. 서론

대학에서 한자 학습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한문 학습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문으로 된 고전 작품 독해를 통해 지식인으로서의 교양을 쌓는 漢文 수업보다 실생활에 필요한 한자와 활용 어휘를 익히는 실용성이 강한 漢字 수업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는 실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¹⁾

1) 고려대학교의 한문·한자 관련 강의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다. 졸업 자격을 위한 한자이해능력 인증시험을 2004년부터 시행하면서 실용 한자에 대한 학습보다는 한문 독해의 비중이 높은 <기초한문>, <교양한문>, <동양의 지혜> 등의 개설 분반 수가 감소하였다. 지난 십여 년 동안의 고려대학교의 교양 과목 가운데 한자와 한문 관련 수업 개설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자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한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학습 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이 호응할 수 있는 수업 내용과 운영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문 관련 수업의 실제 사례를 통해 대학 한문 교육의 교수학습법 개발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²⁾ 대학에서의 한문 교육에 대한 실질적 접근이라는 취지 아래에 필자가 담당했던 한문 수업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소개하고, 그것을 토대로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과목은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개설한 교양 과목인 <동양의 지혜>이다. <기초한문>과 <교

연도	기초한문	교양한문	동양의 지혜	생활한자
1997-1/2학기	7/0	0/7	필수	.
1998-1/2학기	6/0	0/7	필수	.
1999-1/2학기	4/0	0/7	5/5	1/2
2000-1/2학기	4/0	0/7	5/5	5/5
2001-1/2학기	5/0	0/7	5/5	9/5
2002-1/2학기	5/0	0/7	5/5	9/5
2003-1/2학기	5/0	0/7	5/5	9/5
2004-1/2학기	3/0	0/7	2/5	7/8
2005-1/2학기	3/0	0/3	2/3	10/10
2006-1/2학기	2/0	0/2	1/2	11/11
2007-1/2학기	3/0	0/1	1/1	12/11
2008-1/2학기	3/0	0/1	1/1	11/9
2009-1/2학기	3/0	0/1	1/1	11/9

2) 사회 전반적으로 한자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문 교육의 위상이 저하되면서 대학에서의 한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다음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金英珠, 「大學 教養 漢文教育의 現況과 課題 :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大東漢文學』 22, 대동한문학회, 2005.; 박영호,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방향」, 『동방한문학』 27집, 동방한문학회, 2004.; 이강재, 「대학 교양 한문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중국문학』 38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2.; 李東歡, 「한문, 그 효용의 재발견 : 한국어문학,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語文論集』 51집, 민족어문학회, 2005.; 池喜連, 「大學에서의 漢文教育 現況과 改善方案」, 『漢字漢文教育』 7집, 한자한문교육학회, 2001.

양한문>에 비해 문장 독해 능력 배양의 비중은 적으나 실용성 위주의 한자 수업이 아니라 한문 고전을 통해 동양적 사고를 이해하고 동양 문화에 대한 교양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목이므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동양의 지혜>는 1995년 고려대학교의 ‘바른 교육, 큰사람 만들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전교생이 졸업 이전에 이수해야 할 교양 필수 과목으로 개설되었다. 과목 개설 취지는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가 당면한 도덕적·문화적 혼돈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윤리적 전통 위에서 미래의 지도자적 소양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강의를 수행하기 위해 학교에서 심혈을 기울여 편정한 교재가 『新明心寶鑑』(고려대출판부, 1995)이다. 『新明心寶鑑』의 편정 의도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고전을 사상적 입장에 구애 없이 망라하여 단순한 윤리 교과서가 아닌 문화적 자아 탐구의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수강 결정이 학습 수요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졸업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래 취지를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결국 주 1번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99년부터 교양 필수에서 교양 선택 과목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다.

필자가 <동양의 지혜>를 처음 담당했던 1999년 2학기까지도 수강 인원 거의 대부분이 졸업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강을 하였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수강생들에게 매우 생소한 한문으로 이루어진 『新明心寶鑑』만으로는 학습 수요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다. 각종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것을 도모하게 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아울러 <동양의 지혜>가 졸업을 위해 필수 이수 과목이었던 학생들이 대부분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수강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개설한 강좌가 폐강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강 신청을 할 때 강의계획서를 통해 학생들이 강좌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고안한 것이 동양 寓言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여 강의를 운영할 경우 학습 수요자들의

한문 원전에 대한 흥미와 한문 고전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위축된 한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수법 모색의 일환으로 지난 2~3년 사이 한문 교과 교육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³⁾ 그러나 그 논의의 대부분은 유교 경전, 한문 소설, 한문으로 이루어진 短文 등 주로 한문 텍스트를 활용하여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각종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업 실체에 적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영성하다. 더구나 대학에서의 한문 관련 실제 강의 사례를 통한 콘텐츠 활용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법 사례가 대학 한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수법을 모색하는 데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II. 강의 사례를 통한 교수학습법 개발 모색

1.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동양 고전의 재해석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한문 고전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고 한문 교육에 있어

3) 2009년 1월 ‘한문 교과 교육용 콘텐츠 개발’이라는 기획주제로 한국한문교육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한문 교육의 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이 주목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白光鎬, 「漢文科 授業에서의 교육용 콘텐츠 활용 방안」, 『漢文教育研究』 32, 한문교육학회, 2009.; 윤재근, 「한문소설의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문화교육의 이론적 실천을 위하여」, 『漢文教育研究』 32, 한문교육학회, 2009.; 이군선, 「단문을 소재로 한 콘텐츠 개발」, 『漢文教育研究』 32, 한문교육학회, 2009.; 진성수, 「儒敎經典의 교육콘텐츠 활용 방안 시론」, 『漢文教育研究』 32, 한문교육학회, 2009. 이 외에 이러한 방향의 연구로는 金容載, 「儒敎 經典敎育의 필요성과 새로운 敎育방법론 모색」(『儒敎思想研究』 22, 한국유교학회, 2005.)과 金容載, 「동아시아 古典敎育과 문화콘텐츠 개발」(『한문교육연구』 28, 한문교육학회, 2007.) 등이 있다.

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대학에서의 실제 수업 사례를 통해서 문화콘텐츠를 한문 교육에 적용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각종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강의를 운영한 사례를 강의 목표 설정, 강의 자료, 강의 운영 방식 및 평가로 나누어 제시한다.

1) 강의 목표 설정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이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하는 목표 설정이다.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수자의 교육 취지와 수요자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다. 교수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강의 첫 날 학습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⁴⁾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수요자들의 수강 동기는 대부분 다음과 같다.

- 한문으로 된 고전 감상을 통해 선현들의 지혜를 배우고, 중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에 대한 교양을 쌓기 위해서이다.
- 한문 독해 능력과 생활에 필요한 한자 습득을 위해서이다.
- 전공과 연계한 학습을 위해서이다. 한문의 외국어로서의 기능과 한문 고전을 통한 문화적 지식의 습득을 원한다.

설문 조사를 거쳐 파악한 수요자들의 요구와 교수자의 교육 취지를 적절하게 조화시킨 강의 목표를 제시한다.

4) 설문 조사 항목은 수강동기, 한자·한문 실력, 유사 과목 수강 경험, 수업에 바라는 점, 본인이 한 학기동안 성취할 목표 등이다.

- 한문으로 기록된 우리나라와 중국의 고전을 강독함으로써 우리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한자를 익히는 동시에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동양 고전에 담긴 삶의 지혜를 엿보고, 나아가 선인들이 지녔던 문학과 예술에 대한 관점, 그리고 세계관, 자연관, 삶에 대한 태도 등을 살핍으로써 동양적인 삶의 방식과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교양을 쌓는다.
- 동양 고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현실 삶 속에서의 각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각자의 사고와 삶의 태도가 보다 발전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溫故知新’과 ‘日新又日新’의 정신
- 나아가 사회가 당면한 도덕적·문화적 혼돈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학습 목표에서 교수자가 수요자들의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해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溫故知新’과 ‘日新又日新’의 정신이다. 한문과 그것으로 이루어진 고전들이 결코 우리 일상과 동떨어진 낯고 영향력 없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전통으로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임을 일깨운다. 옛것과 새것의 변증법적 결합이 바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토대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한 학기 학습을 통해 실제 삶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학습 수요자들의 수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2) 강의 자료

강의의 주 교재는 앞서 언급한 『新明心寶鑑』이다. 이 책은 모두 7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선인들의 담화와 행적 중 현대 사회에 바람직한 인성의 함양과 생활의 영위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한문 고전에서 가려 뽑아 편집한 것이다.⁵⁾ 다음은 그 체제와 내용을 정리

5) 고려대학교 편정, 『新明心寶鑑』, 고려대출판부, 1995, p.6.

한 것이다.

단원	내용
제1장 道德的 主體의 정립	1. 爲己之學 2. 道德主體로서의 心性 3. 天에의 畏敬 4. 克己 5. 自反 6. 正己 7. 養德과 行善
제 2장 家族으로서의 나	1. 가정의 두 志向 2. 효(1) 3. 효(2) 4. 友愛 5. 부부의 情과 義 6. 가정에서의 교육
제 3장 待人의 도리	1. 禮의 정신 2. 交友의 道 3. 스승에 대한 姿勢 4. 어른에 대한 禮節 5. 交際의 正道
제 4장 共同體의인 삶	1. 共同體의 인식 2. 忠恕 3. 나눔의 삶 4. 인생의 叡智
제 5장 公人의 道	1. 公職人의 基本 人格 2. 廉潔 3. 公正 4. 職分에의 誠實
제 6장 나라를 위하여	1. 憂國 2. 國難에 임하여 3. 節義
제 7장 自然에 대한 윤리	1. 物我一本 2. 自然生機에의 愛情 3. 愛物 4. 自然과의 心性的 交感 5. 自然의 類推的 受容 6. 自然物의 節用

위의 표를 살펴보면 책의 체제가 『大學』의 八條目인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토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문을 처음 배우는 학습 수요자가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힘과 동시에 동양 고전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을 쌓기에 구성과 내용면에서 좋은 교재이다. 그러나 한 학기동안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므로 교수자가 학기마다 수요자의 수준⁶⁾과 강의 일정을 파악하여 학습 가능한 문장을 선정하는

6) 학습 수요자의 한자와 한문 실력 파악은 수업 첫 시간에 실시하는 설문 조사 결과를 참고한다.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요자들의 수준이

것이 중요하다. 학습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한문 독해 능력을 배양하기에 좋은 문장이면서 동시에 그 내용을 통해 다양한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작품을 가려내는 것이다. 다음은 강의의 주교재 및 자료와 참고자료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p>주교재 및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明心寶鑑』(고려대학교출판부, 1995)에서 발췌한 문장 • 영화, 만화, TV광고, 신문 기사, 칼럼 • 학습 수요자들의 발표문
<p>참고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교빈·이현구, 『동양철학에세이』, 동녘, 1993. • 김원중, 『중국문화사』, 을유문화사, 2001. • 이동환譯, 『中庸·大學』, 나남, 2000. • 김성중 옮김, 『논어』, 민족사, 2001. • 성백효 譯註, 『맹자』, 전통문화연구회, 2005. • 洪自誠著/김수경 옮김, 『菜根譚』, 민족사, 2001. • 존 카터 코벨,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 학고재, 1999. • 김교빈, 『한국철학에세이』, 동녘, 2003. • 溝口雄三 외 2인 編 김석근 외 2인 옮김, 『中國思想文化事典』, 민족문화문고, 2003.

3) 강의 운영 방식 및 평가

① 강의 운영 방식

강의는 한문 원전 강독과 그 내용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것을 다양한

편차가 심한 점이다. 다른 교양 과목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수강생들 간의 수준 차이를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 7) 『新明心寶鑑』의 전체 내용을 한 학기 강의 시수에 맞춰 학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학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한 학기동안 제 4장까지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 재해석해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문장이 함유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재해석하는 것은 교수자가 학습한 문장과 관련한 읽을거리와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생각할 문제를 제시하면 그것에 대해 수요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다양한 시각으로의 접근을 위해 수요자에게도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함께 읽을 만한 자료의 제공과 생각해볼 만한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 모든 내용을 한정된 수업 시간에 소화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이버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⁸⁾ 그리고 최종 정리 단계로 학습 수요자 각자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현실 삶 속에서 재해석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이 때 가능하면 영화, 노래, 연극, 만화 등 각종 문화콘텐츠를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음은 ‘제1장. 道德的 主體 - 1. 爲己之學’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 운영 사례이다.

i) 『新明心寶鑑』에서 발췌한 한문 원전 자료 읽기

- 自天子로 以至於庶人히 壹是皆以脩身으로 爲本이니라.(『大學』)
- 學者는 須是務實이니 不要近名이라야 方是라. 有意近名이면 則爲僞也라. 大本已失하면 更學何事리오. 爲名與爲利가 淸濁雖不同이나 然이나 其利心은 則一也라.(『近思錄』)
- 古之學者는 爲己하여 欲得之於己也나 今之學者는 爲人하여 欲見知於人也라.(『近思錄』)
- 君子之學은 必日新이니 日新者는 日進也라. 不日新者는 必日退니 未有不進而不退者라.(『近思錄』)
- 觀古之士하건대 其窮이 愈甚하면 其志가 益厲하며 其節이 益奇라. 若因一困拂하여 而遽喪其所守하면 則不可謂之士矣니라.(『退溪集』)
- 士는 窮不失義하며 達不離道니라.(『孟子』)

8) 현재 고려대학교는 각 강의마다 강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교수자와 학습 수요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에는 커뮤니티 혹은 개인 이메일을 활용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ii) 한문 원전 내용 관련 글 읽기

● < 가짜 수박 진짜 오이 > (한비아, 월드비전진급구호팀장)

“여기에는 가짜가 없어요.”

한 싱가포르 교민이 자신 있게 말했다. 그곳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이 모두 진짜 품이라는 뜻이었지만, 이 한마디가 한 달 넘게 내 마음을 파고드는 이유는 요즘 나의 화두인 ‘진짜인가 가짜인가’와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몇 해 전 중국에서 살 때는 매일 가짜와 전쟁을 치렀다. ‘나이카신발’ ‘말부르담배’ 등 이름 있는 상표는 물론 가짜 농약, 가짜 기차표 등 가짜 물건이 차고 넘쳤다. 가짜 돈도 많다. 그래서인지 중국 사람들은 돈을 받을 때 버릇처럼 전깃불에 비춰보거나 손으로 톡겨본다. 특히 제일 큰 단위인 백 위안짜리 지폐를 받을 때는 대단히 신중하다. 길거리나 기차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예 새로 나온 빨간색 백 위안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 신권 발행과 동시에 대만이나 홍콩에서 만든 다량의 위조지폐가 중국 본토로 쏟아져 들어왔다는 소문 때문이란다. 나도 가짜 돈을 많이 받아 보았다. 남쪽 지방을 여행할 때 은행보다 후하게 쳐준다는 암달러상 말에 혹해서 미화 백 달러를 바꿨는데 받은 중국돈 백 위안짜리 여덟 장 중 다섯 장이 위폐였다. 정말 속쓰렸다.

지난해가. 중국에서 고성능 가짜 상품 감식기가 시판된다는 기사를 읽었다. 최첨단 센서가 붙은 이 감식기는 진짜면 찐찐찐(眞眞眞), 가짜면 짜짜짜(假假假)라고 말한다고 해서 불티나게 팔린다는 보도였다.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만약 저 감식기를 모방한 가짜가 나오면 진짜와 가짜가 뒤죽박죽되겠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진위감식기 없이도 어떤 가짜는 한눈에도 가짜인지 알 수 있다. 가짜가 분명한데 진짜인 척하는 것이 귀엽기까지 하다. 문제는 사이비다. 이건 너무나 교묘해서 도저히 진위를 가릴 수가 없다. 어느 때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

<진실게임>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다. 한명의 진짜와 여러 명의 가짜를 섞어놓고 진짜를 가려내는 게임인데, 나는 단 한 번도 맞혀 본 적이 없다. 번번이 진짜같이 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 제쳐놓은 사람이 진짜로 밝혀지기도 한다.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린다. 진짜 가려내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그러나 아무리 헛갈려도 프로그램 말미에는 반드시 진위가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살이에서도 중국에는 진짜와 가짜가 가려진다고 믿는다. 물건이 그렇고, 말

과 글이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역시 그렇다. 도대체 무슨 수로 끝까지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겠는가.

내가 오지여행을 끝내고 지금은 세계재난지역의 긴급구호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묻곤 한다. “이제 무서운 게 없겠네요?”

왜 나라고 무서운 것이 없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다름 아닌 헛된 이름(허명)이 나는 일이다. 평가절하도 싫지만 지금의 나 이상으로 여겨지는 것, 그래서 실체와 허상의 차이를 매우기 위해 부질없는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이 제일로 두렵다.

실제로는 오이인데 사람들이 수박이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 오이는 남 앞에 설 때마다 크고 동그랗게 보이려고 무진 애를 쓸 것이고, 있지도 않은 줄무늬를 그려 넣고 다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오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늘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한다. 기껏해야 백 년인 인생인데 그렇게 남이 정해놓은 허상에 자기를 맞추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보면 아무리 수박노릇이 근사하고 대접받는다 하더라도 가짜 수박보다 진짜 오이가 훨씬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얼치기, 함량미달, 헛이름이 난 수박보다 진국, 오리지널, 이름값하는 오이가 훨씬 자유롭고 떳떳할 테니까, 그래야 비로소 당당히 제 맛을 내면서 자기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나에게 묻는다. 가짜배기 수박이고 싶은가, 진짜배기 오이이고 싶은가?

iii)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현실 삶에서 재해석한 사례

● 영화 감상 : <데이빗 게일의 인생(The life of David Gale)>

▶ 토론 주제: 인간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행위는 옳은 것인가?

▶ 학생들 토론 내용⁹⁾

● 옳다 :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행위는 정당하다.

○○○ : 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은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오로지 사람만이 자신의 목숨에 대

9) 수강 인원이 30명 이하일 경우는 전체 토론을 실시하고, 그 이상일 경우는 토론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조별로 토론을 한 후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학생들 토론 내용은 조별로 토론을 한 후 제출한 토론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한 선택권이 있다. 자기 자신이 원해서 그것도 단순히 우울증이나 세 상비관으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죽는 것이 라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전태일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열악한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알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자신 의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는 생각으로 분신을 택한 것이었다. 이 경 우 우리는 전태일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어리석다고 비난하지 않는 다.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 그러한 죽음들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 그런 죽음과 노력이 모여 우리가 독립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독립투 사들을 욕하는 경우는 없다.

- : 사람은 스스로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자신의 굳은 신념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죽음을 택한 데이비드 게일처럼 사람은 소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 문이다. 게일은 옳지 않은 제도에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희생한 것이다. 이처럼 사 람들은 각자의 신념을 지니고 살아가고, 그것은 존중받는 것이 옳다.
- : 소중한 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행위는 나쁘다고 할 수 없 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권리 또한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목숨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떠한 개인이 자신의 다른 무 언가를 위해 생명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 다 른 무언가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택한 결정일 것이 다. 대표적인 예로 소크라테스를 들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도망을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도망을 택하기 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가치의 판단은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이 존중되어야 하 는 만큼, 가치관에 따른 판단의 결과가 비록 죽음이라 해도 그것은 존중 받아야 한다.
- :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체에게 가장 소중 하다고 여기는 목숨까지도 바쳐왔다. 일제강점기의 윤봉길의사는 무 슌 이유로 자신의 목숨을 버렸는가? 윤봉길의사는 자신의 목숨보다 조국의 독립, 즉 자신의 신념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신의 생명을 바쳐서 독립을 위한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윤봉길의사의 이런 희생을 단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수많은 생명체 중 유일하게 사람만이 자신의 신념 혹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반론 - 옳지 않다 : 가치 있는 일을 위한 선택일지라도 자살은 윤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 목숨은 인간이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며 고귀한 것이다. 그런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인정한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 이것은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자살뿐만 아니라 살인 등 엄청난 범죄를 정당시 하게 될 우려를 낳는다. 또한 정작 자기 자신이 가족, 친구 등 여러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살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목숨보다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여겨 자살을 택했으나, 결국 다른 이들의 소중한함과 기쁨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 :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독립투사, 전태일 등은 소수의 특별한 경우이고 평범한 일반인들에게 신념을 위한 자살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다. 대중의 지지를 얻어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그 수단으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다. 기존 제도를 변화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면, 차라리 자살을 택하지 말고 살아남아 좀 더 활발한 사회활동을 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극단적이고 한시적으로 끝날 뿐인 자살을 택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 세인들의 관심과 동정을 얻어 자신의 뜻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다. 사람들의 관심과 힘이 실제적 행동으로 표면화되기까지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며, 처음 자살자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또한 사람들은 타인에 관한 것은 쉽게 잊기 마련이다. 일식적인 화제 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뿐인 목숨을 버리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 :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버릴 수 있는 물건 같은 것이 아니다.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며 어떠한 다른 가치도 생명의 위에 놓일 수는 없다. 한 사람이 세

살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전제로 한다. 그 사람의 일생에서 아무리 소중하고 대의가 있는 가치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즉 ‘생명’이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다. ‘생명’ 없이는 다른 가치들은 존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생명은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하며 함부로 생명을 버리는 행위는 옳지 못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iv) 학습 수요자가 수업 내용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재해석한 글 사례

안녕하십니까. 경영학과 ○○○입니다. 김우창 교수님의 <자기가 선택하는 삶>이라는 칼럼을 꺼내 읽고 예전에 품었던 잡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김우창 교수님의 글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남을 이기기 위한 ‘爲人之學’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공부인 ‘爲己之學’을 추구하라는 가르침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 글에서 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외면적 순응만을 요구하고 내면적 의미의 추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진단하셨습니다. 자기가 대학을 선택하고, 스스로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학과 직장에 의해 선택 당하는 문제를 지적하실 때 적잖이 통감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자기 스스로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삶을 추구할 여유가 없다는 한국 현실에 대한 탄식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기가 선택하는 삶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덮고도 남을 설렘이 없다면 선택을 할 유인이 많이 떨어지겠죠. 易地思之한답시고 기업의 채용담당자가 되어 ‘나 같은 녀석을 뽑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일어날까?’를 상상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 자신이 선택하는 삶이라기보다는 남에게 선택 당하는 삶의 전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易地思之가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에 앞서 품어야 할 고민을 망각하는 것이 잘못이겠지요. 제가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따져보고,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을 정성스레 찾아봤는지 돌아보니 부끄럽습니다. 학교를 떠날 시기가 되어 지금은 비록 남에게 선택 당하는 혜택이나마 갈구하는 처지이기도 하지만 두고두고 간직하고픈 말씀이네요.

이와 더불어 강의 시간에 나온 “배움이라는 것은 장차 그것으로써 행하려고 하는 바이다(學者 將以行之也)”라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간명하면서도 정곡을 찌릅니다. ‘읽’과 ‘삶’의 숙명적인 거리를 두고 선현들도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요. 知와 行을 두고 벌어진 주희와 왕수인의 논변은 매력적입니다. 먼저 이치를

깨우쳐야 행할 수 있다는 주자의 先知後行說은 직관적으로 수궁이 가는 면이 많습니다. 정조대왕 역시 주자의 견해를 좇아 “만약에 지식에 참되지 못한 바가 있다면, 실천에도 부족한 점이 있게 된다”라거나 “배움(學)이라는 한 글자는 넓게 말하면 知와 行을 겸하지만, 좁게 말하면 知에 중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정조대왕어록인 『일득록(日得錄)』 참조).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앎을 쌓는데 열중하느라 영원히 실천을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살기 위해, 생각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틈만 나면 다짐하지만, 다짐이 남발된다는 것은 그만큼 제 자신이 덜 지키고 있다는 방증이겠지요. 아무튼 ‘爲己之學’이라는 명제는 등 떠밀려서 움직이기보다 자기가 선택한 걸음을 내딛기를 주문합니다. 얻어먹는 밥에 연연하는 식객의 삶보다는 땀 흘려 개척하는 주인의 삶을 응원합니다. 또한 爲己之學은 ‘앎’과 ‘삶’의 거리를 줄여나가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우아한 말과도 잇닿습니다. 여하간 한 학기 수업을 통해서 제가 선택하는 삶에 대해, ‘爲己之學’에 대해, ‘知行合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② 과제 및 평가

- 학습 수요자 스스로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영화, 노래, 연극, 만화 등 각종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자신의 현실 삶 속에서 재해석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평가는 출석 및 수업참여도 20점, 과제 30점, 기말고사 50점으로 이루어진다.

2. 寓言으로 이해하는 동양의 지혜

1) 강의 목표

강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은 앞서 서술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와 같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강의 목표로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언은 『이솝우화』처럼 작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동물과

식물을 비롯하여 다른 사물에 가탁하여 꾸며낸 이야기이다. 우언 작품이 지닌 의미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각각의 경우에 맞는 삶의 지혜를 터득한다.

-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故事成語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역시 우언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故事成語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학습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강의 내용에서 다루게 되는 故事成語는 별도로 활용 의미를 정리한다.
- 나아가 동양의 寓言 작품을 통해 동양적인 삶의 방식과 思考를 이해하도록 한다.

2) 강의 자료

주요제 및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양의 우언 작품을 주제별로 선정 -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공부, 신념, 욕망) - 더불어 사는 삶(스승, 효, 우애, 벗) - 사회(정치) • 학습 수요자들의 발표문
참고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승준, 『動物寓言의 傳統과 寓話小說』, 월인, 1999. • 윤승준, 『우언의 재미와 교훈』, 월인, 2000. • 윤주필, 『틈새의 미학』, 집문당, 2003. • 윤주필 외, 『동아시아 우언론과 한국의 우언문학』, 집문당, 2004. • 김영, 『네티즌과 함께 가는 우언산책』, 한울, 2003. • 김영, 『망양록 연구』, 집문당, 2003. • 김영, 『한국의 우언: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고전』, 현암사, 2004. • 천푸칭 著·오수형 譯, 『중국의 우언문학사』, 소나무, 1994. • 유기 지음·오수형 옮김, 『육리자』, 궁리, 2003. • 嚴北溟·嚴捷 編著/곽신환·김태완 옮김, 『돌부리에 채이고 가시에 찢리고』, 서광사, 1994. • 嚴北溟·嚴捷 編著/신하령·김태완 옮김, 『진흙 인형의 탄식』, 서광사,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嚴北溟·嚴捷 編著/신하령·김태완 옮김, 『깃발인가 바람인가 마음인가』, 서광사, 1994. • 嚴北溟·嚴捷 엮고 지음/신하령·김태완 옮김, 『소금수레 끄는 천리마』, 서광사, 1994.
--	--

3) 강의 운영 방식 및 평가

① 강의 운영 방식

강의 운영은 다음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주제별로 선별한 각각의 우언 작품을 읽는다. 한 작품의 분량이 많은 경우는 원전 강독이 아니라 번역물로 내용을 소화한다.

둘째, 각각의 우언이 내포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본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다른 각자의 생각을 교환한다.

셋째, 학습 수요자들 스스로 강의에서 주어진 세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적절한 우언 작품 하나를 선정하여 소개한다. 아울러 선정한 우언 작품이 지닌 의미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재해석하여 발표한다. 그 발표 내용에 대해 학습 수요자가 함께 토론한다.

다음은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 구체적인 강의 운영 사례이다.

i) 우언 읽기

-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육망)
- < 원추와 올빼미 >

惠子相梁，莊子往見之。或謂惠子曰：“莊子來，欲代子相。”於是惠子恐，搜於國中三日三夜。莊子往見之曰，“南方有鳥，其名爲鷓鴣，子知之乎？夫鷓鴣發於南海而飛於北海，非梧桐不止，非練實不食，非醴泉不飲。於是鷓得腐鼠，鷓鴣過之，仰而視之曰，‘嚇！’，今子欲以子之梁國而嚇我邪？”

- 莊子, 『莊子』 <秋水篇>

● < 술 좋아하는 성성이 >

성성은 술을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다. 어느 큰 산자락에 사는 사람이 술상을 차려놓고, 크고 작은 술잔을 놓아두었다. 또한 짚신도 서로 연결해서 길가에 놓아두었다. 성성이가 그것을 보고 자기를 속여 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 채고, 그것을 설치한 사람과 그 조상의 이름까지 일일이 들먹이며 욕을 퍼부었다. 그러나 금세 어떤 성성이가 말했다.

“술맛이 어떤지 조금만 마셔보는 게 어때? 많이만 안마시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작은 잔을 들어 술을 마시고는 욕지거리를 하면서 지나갔다. 조금 뒤에는 좀 더 큰 술잔에 술을 따라 마셨다. 이렇게 몇 차례 술 마시는 것을 참지 못하고 큰 술잔을 들고 실컷 마시다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까맣게 잊어버렸다. 취해서 두 눈을 껌벅거리고 즐겁게 떠들면서 길가에 놓아둔 짚신도 신어보았다.

그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오자 성성자들은 서로 밟히고 걸려 넘어져, 한 마리도 도망가지 못하고 모두 붙잡혔다. 뒤에 온 성성자들도 모두 이런 식으로 잡히고 말았다.

- 劉元卿, 『譬喻錄』

● < 東家食西家宿 >

제(齊)나라의 한 아가씨에게 총각 둘이 동시에 청혼을 했다. 동쪽에 사는 총각은 못생겼지만 돈이 많고, 서쪽에 사는 총각은 잘생겼지만 매우 가난했다. 그래서 아가씨의 부모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자기 딸에게 물어본 위 누구에게 시집보낼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수줍어서 입을 떼기가 어려우면 한쪽 팔을 걷어라. 그러면 우리는 네 뜻을 따르겠다.”

그랬더니 딸이 두 팔을 다 걷는 것이 아닌가. 부모들이 어리둥절해서 그 까닭을 물어보자, 딸이 말했다.

“밥은 동쪽에서 먹고, 잠은 서쪽에서 자면 되지 않을까요?” - 應劭, 『風俗通』

ii) 우언 원전 내용 관련 글 읽기 :

● 강수들의 『작은 풍요』(이후출판사, 1999.) 중 하인리히 뵐의 글을 인용한 부분
어느 조용하고 아늑한 어촌 마을의 아침이었다. 햇별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바닷가의 모래밭에서 한 고기잡이 노인이 평화롭게 단잠을 자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마을에 휴양을 온 한 관광객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이 노인이 잠자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이 젊은이는 사진을 찰카,

찰칵 찍어 댔다. 그런데 그 소리에 그만 이 고기잡이 노인이 잠을 깨고 말았다.

“그 낚시요?”

“아이쿠, 죄송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이온데 할아버지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아서 그만... 죄송합니다.”

“ ... ”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고기 잡으러 나가지 않으세요? 벌써 해가 저만치...”

“이미 새벽녘에 다녀왔구먼.”

“아 그러세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다녀오셔도 되겠네요?”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 뭐하게?”

“...참, 할아버지도. 그러면 저 낚은 거룻배를 새 걸로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선?”

“그 다음에는 새 거룻배로 고기를 잡으시면 훨씬 빨리, 한결 많이...”

“음... 그 다음에는?”

“그야 당연히 크고 좋은 배를 몇 척 더 사시고, 사람도 많이 부리고... 그러면 뭇돈 버는 것은 시간문제 아니겠어요?”

“옳거니, 그래서?”

“그 다음에야... 이 마을에 생선 가공 공장도 세워, 싱싱한 통조림도...”

“흠... 그리고 나서는?”

“그 때는 별 일도 않고 가만히 누워 그저 편안히 지내실 수 있지요.”

이 말에 고기잡이 노인은 대답했다.

“지금 내가 바로 그렇게 지내고 있네.”

“ ... ”

iii) 학습 수요자가 우언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여 재해석한 사례

● <『莊子』「秋水」편의 내용을 통해 생각해 본 나의 치세관> (경제학과, ○○○)

장자가 복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楚나라 왕이 보낸 두 명의 대부가 찾아와 왕의 뜻을 전달하였다. “부디 나라 안의 정치를 맡기고 싶습니다.” 장자는 낚싯대를 권 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나는 초나라에 신령스런 거북이 있었는데 죽은 지 3천 년이나 되었다고 들었소. 왕이 그것을 형경에 싸서 상자에 넣고 묘당 위에 소중하게 두었다는데, 이 거북은 죽어서 뼈를 남겨 귀하게 만들어 지기를 바랐겠소, 아니면 살아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면서 다니기를 바랐겠소?” 두 대부는 대답했다. “그야 살아서 진흙 속에서라도 꼬리를 끌며 다니기를

바라겠지요.” 그러나 장자가 말했다. “돌아가시오. 나도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다닐 것이요!”
- 『莊子』 『秋水』

莊子釣於濮水，楚王使大夫二人往先焉曰，“願以境內累矣!”，莊子持竿不顧曰，“吾聞楚有神龜，死已三千歲矣，王以巾笥而藏之廟堂之上。此龜者，寧其死爲留骨而貴乎? 寧其生而曳尾於塗中乎?,”二大夫曰，“寧生而曳尾塗中.” 莊子曰，“往矣! 吾將曳尾於塗中.”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각자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위 글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자의 무위자연을 추구하는 삶에서 미루어 본다면 위 글의 마지막 부분인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겠다는 말은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의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우언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효순이 미선이 추모 집회에 수차례 참여하고 난 뒤 깨달은 바가 있어 2003년 이라크 파병을 막고자 사회운동을 했었습니다. 미국을 극렬히 싫어하는 반미는 아니지만 무의미한 침략전쟁에 참가해 국가적 이익을 얻고자 파병을 결정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파병이 결정되었고 저는 그 길로 사회운동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대를 하였고 제대 후에는 어떠한 집회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공부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시 학업에만 열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운동을 지속하지 않고 현실을 회피하듯이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장자의 우언에서 언급된 진흙 속에 살고 있는 거북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위 글이 저에게 보다 큰 의미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어부사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갯근을 씻을 것이고, 물이 흐리다면 발을 씻을 것이다.” 언뜻 듣기에는 혼자 고결하게 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장자보다 현실에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럴듯한 말이지만 세상일에 관여치 않겠다는 한 맥락에서 비교해 봤을 때 나올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의 옳고 그름은 각자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비록 물고기 배에 장사 지낼지언정 세속의 먼지를 뒤집어쓰지 않겠다.”라던 초나라의 마지막 충신 굴원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결국 굴원은 먹라수에 몸을 던져 생을 마쳤으나 고결한 그 뜻만큼은 남아 후세에 길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맹자의 대장부에 “뜻을 얻는다면 백성과 함께 할 것이며 뜻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홀로 옳은 길을 걸어가겠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그 뜻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생산적인 사색만을 하며 세상을 한탄하며 자기개발도 사회참여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끊임없이 걷다보면 뜻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지금은 이 세상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힘이 미약하여 쉽게 부딪칠 수 없으나 뜻을 이루기 위해 충분히 자신을 갈고 닦아 나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가슴 속 깊이 품었던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지금 한가로이 인터넷으로 한창 이슈가 되었던 평택 대추리 관련 신문기사를 보면서 제가 지금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있었다면 전남도청을 사수 하면서 자랑스럽게 죽음을 택할 수 있었겠는가, 또는 1960년 4월 18일 이곳 고려대학교에 있었다면 부패한 이승만 정권에 맞서 피를 흘렸던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겠는가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과거의 4.19, 5.18 때와 같이 충분히 뜻을 얻을 수 있었던(得志) 상황들을 경시하여 지나치지 않았는가를 함께 반성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장자가 말했듯이 죽어서 뼈를 남긴 귀한 거북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진흙 속에서 살아있는 거북이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작게는 선생들의 촌지에서부터 크게는 정치인들의 검은 비리들을 보면서 제 가슴 속 답답함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언젠가 이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 놓을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제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② 과제 및 평가

- 스스로 강의에서 주어진 세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해당하는 우언 작품을 찾아 소개하도록 한다. 아울러 작품의 내용을 자신의 삶 속에서 ‘溫故知新’의 정신에 입각하여 재해석하여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한다.
- 평가는 출석 및 수업참여도 30점, 과제(발표문) 30점, 기말시험 40점으로 이루어진다.

Ⅲ. 결론

이상에서 필자가 <동양의 지혜>라는 한문 관련 교양 과목에서 그동안 시행했던 교수학습법 사례를 소개했다. 한 학기 동안의 교육을 통해 단시간 내에 학습 수요자의 思考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다양한 문화의 빠른 변화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대학생들이 강의를 통해 학습 이전보다 한문 원전에 관심을 갖고 한문 고전이 지닌 참된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문화콘텐츠와 寓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수법을 모색해 본 것이다. 그 결과 한 학기 학습을 마치고 난 뒤 학습 수요자들은 강의에서 원래 목표로 했던 항목들에 대해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음을 강의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강의 자료와 운영 방식 등 강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학습 수요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이러한 교수법이 한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효용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교수학습법도 교육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문 원전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방향으로의 시도가 지속적으로 병행될 때 한문 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 文獻>

- 金英珠, 「大學 教養漢文 教育의 現況과 課題 :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大東漢文學』 22, 대동한문학회, 2005.
- 金容載, 「儒教 經典教育의 필요성과 새로운 教育방법론 모색」, 『儒教思想研究』 22, 한국유교학회, 2005.
- 金容載, 「동아시아 古典教育과 文化콘텐츠 개발」, 『한문교육연구』 28, 한문교육학회, 2007.

- 박영호,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의 방향」, 『동방한문학』 27집, 동방한문학회, 2004.
- 白光鎬, 「漢文科 授業에서의 교육용 콘텐츠 활용 방안」, 『漢文教育研究』 32, 한문교육학회, 2009.
- 윤채근, 「한문소설의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 - 문화교육의 이론적 실천을 위하여」, 『漢文教育研究』 32, 한문교육학회, 2009.
- 이강재, 「대학 교양 한문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중국문학』 38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2.
- 이군선, 「短文을 소재로 한 콘텐츠 개발」, 『漢文教育研究』 32, 한문교육학회, 2009.
- 李東歡, 「한문, 그 효용의 재발견 : 한국어문학,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語文論集』 51집, 민족어문학회, 2005.
- 池喜連, 「大學에서의 漢文教育 現況과 改善方案」, 『漢字漢文教育』 7집, 한자한문교육학회, 2001.
- 진성수, 「儒教經典의 교육콘텐츠 활용 방안 시론」, 『漢文教育研究』 32, 한문교육학회,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aching-learning methods of Classical Chinese education in college - Through the case of Classical Chinese-related course as general elective course / Kim Jin Kyung*¹⁰⁾*

In college education, the demand for learning classical Chinese seems to be decreasing while the demand for learning Chinese characters is continuously increasing. Under this situation, in order to encourage learning Chinese classics, teachers need to identify the needs of learners and develop contents and management methods of lessons that they can enjoy.

The present study used a case of classical Chinese related course as an elective course in order to search for effective ways of developing teaching-learning methods of classical Chinese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Specific contents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the course, that is <the wisdom of Orient> were introduced and an effective direction of classical Chinese education was searched for from the view of practical approach to classical Chinese education in college. In general, ideal teaching-learning conditions include reasonable goal setting, interesting contents, systematic management designed to motivate learners' participation, and valid criteria of evaluation. Among these conditions,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contents developm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course that can trigger, increase, and maintain learners' interests and participation.

The teaching-learning method that I used in the course <the wisdom of the Orient> was to re-interpret the Oriental classics in terms of everyday life by the use of cultural contents. In addition, I encouraged the students to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Jeompiljae, Pusan National University
/ yeshanmoon@hanmail.net

understand the wisdom of the ancestors and the Oriental culture through learning allegories. Research on the contents development of classical Chinese courses has been conducted for the past several years in order to investigate teaching-learning methods for the activation of decreased classical Chinese education. However, case studies on the contents utilization in classical Chinese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have not been reported. Therefore, the present case study may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eaching-learning methods of classical Chinese education in college.

【Key words】 Classical Chinese education, teaching-learning methods, case, Oriental wisdom, culture contents, allegory

투고일 : 11월 9일, 심사일 : 11월 19일, 게재확정일 : 12월 5일